

주가	환율	금리
-5.47 1,427.76 (코스피지수)	+4.60 931.60원 (원/달러)	보합 4.8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3.43	(-3.16)
다우(18일)	12,441.27	(-4.25)
나스닥(18일)	2,435.57	(-21.63)
닛케이	16,776.88	(-185.23)
엔-달러 환율(도쿄 17:00 기준)	118.09엔	(-0.06)
유로 달러 환율	1,3082달러	(+0.01)
3년만기 회사채	5.19%	(보합)
클레디	4.48%	(보합)

아시아나, 100번째 항공기 도입 창립 18년 만에...상하이·방콕 노선 투입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18년 만에 100번째 항공기를 도입했다. 아시아나는 창립 첫째인 1988년 12월 'B737-400'을 도입한 지 18년이 지난 19일 100번째 여객기인 'A330-300'을 인도받았다.

이 여객기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클래스 시트'와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미니 바' 등이 설치된 최첨단 항공기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도입을 통해 A330 기종 보유 대수가 5대로 늘게 됐다. 이 여객기는 20일부터 인천-호치민 구간을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방콕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전남 농산물 전국화 할 것"

신임 권용주 aT 광주·전남지사장

"국민의 먹거리 수급과 가격관리, 수출농업 육성 등 공사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겠습니다."

20일 부임한 권용주(53)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특히 고품질의 안전농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 지사장은 "농도인 전남의 농산물 생산·공급실적이 경남보다 적은 것이 안타까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출업체 및 산지유통업체 방문 등 현장중심 경영을 펼쳐 전남농산물의 이름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지사장은 지난 72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입사해 분사 경영분석부장, 유통교육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양제철, 세계 최대폭 전기강판 개발

포스코 광양제철이 변압기의 철심소재로 사용되는 초광폭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품폭을 세계 최대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포스코가 지난 2004년부터 전기강판 생산설비의 교체와 보완에 2천997억원을 투자, 전기기기의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고급 전기강판 생산량을 확대, 에너지 절감형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기로 한 성과물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포스코는 "기존 최대 1천mm였던 고급 전기강판(HGO급)의 제품 폭을 세계 최

변압기용 철심소재 1,000mm→1,200mm로 늘려 2008년까지 생산력 최대 25만t까지 확대

대인 1천200mm까지 늘려 5개 정도인 철심 생산량을 6.7개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최근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향성 전기강판이란 변압기용 철심의 소재로,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선 방향이 압연방향으로 흐

르는 강판이다.

포스코의 초광폭 방향성 전기강판의 양산은 지난 7월 방향성 전기강판 2단계 설비증강을 통해 6만5천t에 불과했던 생산력을 17만t까지 높인 뒤 불과 5개월만 이다.

포스코는 초광폭재의 증산효과로 방

향성 전기강판을 최대 20만t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오는 2008년까지는 고급전기강판을 생산력을 최대 25만t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다.

또 경쟁사보다 넓은 광폭재를 공급함으로써 고객사들의 생산성과 실수율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독립공정으로 진행하던 절연코팅과 정정라인을 합한 HCL 공정에 온라인 정정기능을 도입해 제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제강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 공정

▲HCL공정= 냉연강판의 제조공정의 하나로 산재생공정이 라고도 한다.
▲실수율(實數率)= 비철 금속을 제련할 때 원료 속에 들어 있는 금속 성분들이 얼마나 금속으로 거두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술·경제적 지표.

인 표면처리까지의 공정을 단축도 가능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급전기강판의 초광폭재 생산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객사들이 이 광폭재를 사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절감형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kwangju.co.kr



"사랑의 동전 희망을 나눕니다" 광주시세계 직원들이 19일 오전 백화점 회의실에서 지난 5일부터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벌여 모금한 300여만원의 성금을 한데 모으고 있다. 광주시세계는 모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600여만원의 성금을 한국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외국계銀에 주택대출 몰린다

시중銀 대출규제 강화 틈타
금리인하·고객 한도 확대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주택대출 수요가 외국계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은행에 비해 많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외국계 대부업체로부터도 큰 돈을 빌리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선 이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대형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대출 억제 조치를 취하자 외국계은행 창구에 주택대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5일 현재 17조9천539억원으로 지난달말 이후 보름새 1천468억원 늘었다.

외국계은행들에 대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대출금리 면에서도 외국계 은행들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최근 잇따라 주택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으나 외국계은행들은 정반대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3개월마다 변동되는 HSBC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이달초 5.49%였으나 18일에는 5.4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9월20일부터 3개월간 금리가 최저 연 5.64%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대금리를 규정상 최대 수준인 7.01%에서 실제 적용치인 6.64%로 낮춘 채 고시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완신도시 편의시설 자산관리 전담 (주)레이크파크 출범

광주 수완신도시의 종합편의시설(조감도)의 자산 관리를 맡게될 (주)레이크파크자산관리(대표이사 변동원)가 출범한다. 19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완지구에 들어설 대형마트, 영화관, 메디컬센터, 스포츠센터, 학원 등 1만평 규모의 종합쇼핑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를 전담하게될 레이크파크자산관리가 20일 업무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롯데건설소시업과 토지공사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투자했으며, 총 2천50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초대 대표이사는 변동원 전 토공 광주전남본부장이 선임됐다. 편의시설은 2008년 건축공사 착공 후 2009년 말 할인점 개



점을 시작으로 2010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자금조달·시공·분양을 진행하는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마무리

내년 주·간선도로 10km 추진

국가산단인 대불산업단지의 전선 지중화 사업 구간 가운데 10km 구간의 사업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9일 "대불산단내 도로변 전선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주·간선도로 약 10km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도비 5억원을 들여 현대미포조선-대불항-삼호중공업 남문구간과 나불로 1구간 등 약 5km 구

간에 이어 내년까지 선박블록 업체 밀집 지역인 주·간선도로 15km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불산단 조선산업 클러스터 안에 전선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은 모두 38.6km로 소요 사업비 80억원이며 한전과 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해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불산단에 모여 있는 40여개의 선박블록 생산업체들은 도내 및 경남지역과 일본 등에 수출할 때마다 도로변의 전주와 전선으로 인해 블록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지경기자 unzipark@

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 75% 연료비 절감!
- 무보증 장기일부
- 무연료 냉·난방

1588-8717, 062-399-7641

우성은수매트!

15년전부터 [주]우성 [매트]에서 만든 말뚝수 있는 매트

다시말방식 / 매트방식 / 매트방식 / 매트방식

100% 수납가능 매트 / 매트방식

1600-7234